

구술사와 치유: 트라우마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김귀옥(한성대 교양교직학부 교수, 사회학)

<목 차>

1. 문제제기
2. 구술사는 해방적인가?
3. 구술사, 기억을 말하다
4. 한국현대사와 구술사, 트라우마
5. 구술사와 치유의 가능성을 찾아서
6. 맺음말

1. 문제제기

2000년대 들어 구술사가 방법론의 대안으로서 떠올랐다. 구술사는 하나의 연구방법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구술사는 친근한 한국학의 토대를 두텁게 하고 풍부화시킬 수 있는 열쇠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20년간 구술사를 동원한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들이 국내외적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구술사 관련하여 가장 큰 성과는 2009년 한국구술사학회(초대회장 함한희 교수)의 창립을 손꼽을 수 있다. 한국구술사학회는 구술사 관련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교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 대학 연구기관들과도 교류 활동을 주도하며 운영되고 있다.¹⁾

한국에서의 구술사 연구를 언급할 때 학문적으로는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언급하기 마련이다. 그때 1990년대 미국 유학생 출신의 인류학 연구자들이 거론된다.²⁾ 김성례, 유철인, 윤택림, 함한희 교수 등은 이 분야에서 초창기 구술사가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전부터 한국에서 구술사는 학문적인 소통에 선행하여 사회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1980년대 5·18의 처절한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 잡힐 각오, 매 맞을 각오를 하면서 구술증언 조사를 하여 세상에 나온 책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광주5월 민중항쟁의 기록1, 2』(풀빛, 1985, 1987)이다. 이 책의 지은이는 황석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집필을 주도한 사람은 이재희와 기독교 관계 단체 일을 보던 조봉훈, '5·18 최후의 수배자'로 불리는 고(故) 윤한봉이 한때 주도하던 현대문화연구소³⁾측이었다⁴⁾. 광주 지역에서 양심적인

1) 김귀옥, “한국학 발전을 위한 구술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구술사 연구동향과 쟁점”, 『기록인IN』 Vol.20, 24쪽.
2) 김귀옥, “한국 구술사 연구 현황, 쟁점과 과제”, 『사회와역사』 통권71호, 2006(313~348). 1990년대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논문으로는 최경숙의 “직장암환자의 질병경험: 구술사적 접근을 통한 사례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과 김귀옥의 “한국전쟁기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을 들 수 있다.
3) ‘현대문화연구소’는 광주, 전남 지역의 청년운동의 근거지로서 1979년 6월에 설립되었다. 그 연구소는 지역의 많은 민주인사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었고, 5·18 직전까지 광주운동권의 회의장이자, 정보생산보급창구가 되었으며, 민중문화운동조직인 ‘광대’나 여성운동회의 ‘송백회’도 그것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正史5·18」 25회, 『광주매일』 ; 광주매일正史5·18특별취재반, 『正史5·18』, 사회평론, 1995,

지성인들과 시민들은 국가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공포를 무릅쓰고 침묵당해야 했던 고통스런 기억을 구술 조사해 나가기 시작했다.⁵⁾ 이 자료는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시절 '5·18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중요한 밑그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은 4·3사건 관련자들도 마찬가지였다. 4·3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조사 연구하기 전부터 4·3은 무속문화 속에서 기억되고 말해지고 있었다.⁶⁾ 4·3조사는 1989년 제주 4·3연구소⁷⁾가 설립되면서 진실규명 차원에서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그 연구소는 진실회복운동을 목표로 두고 관련 문서를 수집하는 한편 관련자 증언을 채록, 수집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그 첫 성과가 『이제사 말할수다 1,2』 (한울, 1989)로 결실을 맺는다. 또한 『제주일보』 4·3특별취재반은 수십 개 마을을 방문하여 촌로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생생한 증언 자료를 수집하면서 소문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이 진실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며, 진실규명운동도 탄력을 받았다. 그러한 활동이 모여 2007년도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기록이 부재하거나, 왜곡되어 있는 현대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구술사 방법론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음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언론사에서도 짧은 취재에 만족하지 않고 심층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구술사 방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텔레비전에서도 구술사를 활용하여 현대사를 재발굴하는 기획물을 제작했다. 그 한 예로는 한국방송공사가 해방 60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우리는 8.15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시리즈 1부의 'TV 구술사' 4편을 들 수 있다. 문화방송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역시 구술사 방법론을 적극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는 국가보훈처 프로젝트로 2005년 4월부터 독립운동가 280명이 구술하는 '영상기록, 생존 독립운동가의 일상(가칭)'을 제작할 것을 기획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5. 3. 31).

구술사 연구의 주제도 처음 도입될 때는 한국 현대사, 전쟁과 학살, 일본군위안부, 여성, 탈북자 등의 주제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대 이르러 방법론에서부터 구술기록 관리에 이르는 범주로 걸쳐 있고, 강제징용이나 일제 항일운동, 해방과 전쟁기 등을 포함한 현대사 문제로부터 일상생활에 걸친 주제나,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비전향장기수, 양심수, 외국인 이주민 등의 문제나 체육, 의료, 복지, 과학, 대중매체, 영화를 포함한 예술 분야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와 연구 주제로 확산되어 한국학 주제를 넓혀 나가고 있다. 이처럼 구술사는 보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학 내 정규 학과나 강좌도 제대로 개설·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학위논문이나 연구논문, 보고서가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학 연구 지평을 다양화, 확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구술사⁸⁾ 외에 그것은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 그간 많이 언급되었던 점으로서는 역사의 전면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를 발굴하는데 일차적 유용성이 있다. 역사적 기록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 승리자나 지배자의 관점에서만 기억되거나 기록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기록을 남길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1차적 문맹자, 사회적 약자, 못 백성(민중), 대다수의 여성

114~115쪽.

4) "실록민주화운동", 『경향신문』 2004.5.11

5) '최정기(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증언'

6) 김성례, "한국 무속에 나타난 여성체험: 구술생애사의 서사분석", 『한국여성학』 7호, 1991(7~43쪽), 25쪽.

7) 이 연구소는 1987년 겨울 재경제주출신이 만든 제주사회문제협의회와 1987년 설립된 아시아아프리 카라틴아메리카연구소(일명 아라리)가 통합되면서 설립되었다.

8)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선인, 2005, 39쪽.

등도 있으나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한 사람들(민주화운동가, 독립운동가, 반체제, 혁명가, 냉전의 희생자들)의 기억을 역사화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또한 행위의 이면, 즉 동기를 이해하는데 이만큼 유용한 방법은 없다. 기록된 자료에는 진실한 이유를 드러내는 문자기록보다는 지배자의 행위나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문자기록이 허다하다. 또한 숫자화 되어 있는 통계자료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실의 문을 여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구술사 방법은 다른 연구방법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구술사는 침묵의 기억으로부터 구술자를 해방시키거나 치유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한다.

20년 가까이 구술사를 연구의 한 축으로 여겨온 글쓴이에게 있어서 해방이라는 언어와 치유라는 언어는 다소 거리감을 두고 다가오고 있다. 예전보다는 자신감이 많이 약해지긴 했으나 다음 장에서 설명하게 되겠지만, 해방으로서의 구술사의 역할에는 다소 자신 있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술사를 할수록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해방과 치유에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술사는 연구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는가를 우선 살펴보도록 한다. 둘째, 구술사 연구 과정에서 구술 연구자들이 만나게 되는 구술자의 기억과 기억 속에 파묻혀진 트라우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셋째, 구술사가 과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치유의 가능성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구술사는 해방적인가?

모든 연구에서 구술사 방법론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문헌 분석 연구나 통계자료를 기초한 연구가 충분한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연구는 문헌 자료로 남아 있는 않는 무형물이나 기억, 생활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무형물 등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민속학이나 고고학 등이라면 살아있는 사회생활 자체가 연구되는 분야가 전통 인류학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에스노그라피(ethnography)⁹⁾이다.

에스노그라피는 한국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었는데, 주로 민족기술지, 민속기술지로 해석되다가, 1990년대 이래로는 '문화기술지'로 번역되는 추세이다. 에스노그라피는 서구인의 관점에서 소수민족이나 집단을 보고, 느끼는 대로 기록하는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 보면 그것은 타민족, 소수민족, 타자를 연구자라는 주체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에스노그라피는 타민족의 생활이나 상호작용(interaction), 사회적 관계, 의식·무의식적 행위나 태도 등을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다. 참여관찰하고 있는 대상은 타민족, 소수민족, 타자의 생생한 생활 현장이자 의미화된 세계이다. 텔레비전의 토착민 탐사 프로그램과 같이 낯설기도 하지만 인간의 공통성의 발견에 의해 감동을 갖게 되는 과정이 드러난다. 또한 서구 사회에 비하여 다소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토착민의 사회과정을 관찰하는 과정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술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온 연구에 여러 편의 대작들이 있다. 최고봉의 연구로는 레비 스트로스(Claude Levi Strauss)의 『슬픈 열대』나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의 『마누스족 생태(生

9) John D. Brewer, *Ethnograph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2000.

態)연구』(1930), 『세 미개사회의 성과 기질』(1935), 루스 베네딕트(Ruth F. Benedict)의 『문화의 유형』(1934) 등이 있다.

그러한 에쓰노그래피가 수행되는 전체 절차나 인류학자들, 혹은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큰 틀에는 권력관계가 작동된다. 서구나 미국의 연구자들이 문명과 야만, 선진과 후진, 지배와 피지배 혹은 ‘식민주의’라는 권력관계가 작동되고 있는 현지에서 서구문명 대 원시야만이라는 관점에서 만나져 왔다. 서구인의 관점에서 무관심했던 영역이나 사회 현상들이 드러나고 분석되었다.¹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의 유형이나 사람들-부족이기도 하고 민족이기도 한 집단-의 심성구조, 인류 기원의 문제, 사회적 관계 등을 설명했다. 레비스트로스처럼 서구의 문명 대 야만의 시선으로 보는 인식에 도전하는 하며, 서구중심의 ‘제국주의’화된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의 인식을 극복하며 상대주의 인식을 구체적 분과학문에서도 설득해나가며 ‘실증주의’적 세계관을 스스로 파괴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에쓰노그래피에서 면담은 부차적으로 사용되고, 주로 ‘참여관찰’이 사용된다. 관찰되는 것은 행위의 이면에 담겨진 어떤 것이기 보다는 현상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해 물음을 묻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시선’의 제국주의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참여관찰되는 현장은 연구자와는 전혀 다른 세계이다. ‘낯선 사람’으로서의 감수성은 이론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행위자와는 다른 연구자의 ‘시선’의 폭력이 작동하기 쉽다. 서구에서 발전시켜온 에쓰노그래피 연구자는 연구에는 ‘전지전능’적인 제3의 관점과 해석을 가지기 쉽다. 관찰과 해석에는 서구인 대 비서구인이라는 1차적 권력관계와 연구자 대 현지인이라는 2차적 권력관계마저 작동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와 현지 피 조사자의 관계는 대개 평등하기 보다는 불평등하기 쉽다.

예컨대 현지에서 관찰하던 중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한 집단의 전형적인 사람으로 간주하여 그 사람을 통해 그 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은 어떤가? 그렇다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우울증에 따른 행동질환을 통해 추론을 할 수는 있으나 의학적 전문가가 제대로 면담(진찰)을 통해서 진단해야 알 수 있다. 즉 면담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아닌 사람을 판별할 수 있다. 그런데 대체로 관찰되는 사람들과 서구의 지식인들은 언어 면에서나 문화면에서 이질적이어서 그 언어에 정통하지 않는 한 면담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언어에 깔려 있는 심리적 기제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한편 ‘대화’하는 인식 기저에는 서로 평등하다는 인식이 작동한다.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배우는 사이에서나 일방은 관찰하고, 타방은 행위를 하는 사이에서는 진정한 대화가 쉽지 않다. 대등한 대화가 수반되지 않은 관찰은 연구자의 깊은 통찰과 이해력에도 불구하고 피관찰자의 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관찰 중심의 연구는 연구자의 세계관에 의해서 파악되어 ‘해방적 지식’을 발견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는 구미의 학문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새로운 ‘오래된 방법론’¹¹⁾으로서 ‘구술사 방법론’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구술사 방법론은 어떠한가? 구술사 방법론에서도 연구자 중심주의를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시인해야 한다. 그러나 구술사 방법론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실증주의적인 연구나 참여관찰과도 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해방적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론이 되고 있

10) 에쓰노그래피에서 면담은 부차적으로 사용되고, 주로 ‘관찰’이 주로 사용된다. 관찰되는 것은 행위의 이면에 담겨진 어떤 것이기 보다는 현상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해 물음을 묻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시선’의 제국주의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1) Ong, Walter J.,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7[1982].

다.

첫째, 구술사 방법론은 연구내용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도 해방적 성격이 있다. 구술사 내용을 결정하고, 장차 연구 주제를 결정하는 것도 구술 연구자¹²⁾와 구술자의 쌍방향적 과정(interactive process)이다. 대개 연구자는 구술자를 조사하기 전에 연구 주제를 설계하고 연구 질문 문항들을 만들어 놓은 후 만나기 쉽다. 그러나 제대로 훈련을 받은 연구자라면 연구 주제나 질문 문항들을 설계하기 전에 구술자와 사전에 만나 충분히 이야기를 주고받은 과정에서 연구 주제와 질문 문항을 구체화하기 마련이다. 이를 ‘사전 조사(pilot study)’ 과정이라 한다. 심지어 구술사 방법론 기존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연구로서 ‘보완’적인 성격도 있으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던 중 기존의 연구에서는 접한 적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시작되는 연구로서 ‘대체’적인 성격도 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은 자기 발견적이며, 기존에 알지 못했던 지식과 기억, 경험이 표출되는 과정이다. 구술사 방법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구술자의 기억과 구술에 토대로 두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의의 연구 과정에서 구술자의 해방적 지식이 연행(oral performance)된다.

둘째, 구술사 방법론에서 구술자의 지위 자체가 해방적 성격을 갖는다. 구술사 방법론의 출발은 ‘문자기록’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기억이다. 문자기록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당대의 피지배권력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대부분의 민중은 당대에 숨 쉬고 활동하고 사회를 형성하는 기여하지만, 국가로부터 기록되지 않거나 기록되더라도 지배자의 관점에서 기록될 뿐이다. 그러한 민중 가운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거나 희생된 후 그 고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나 기록이 되지 않아 그 폭력사건의 전말이나 진정성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거창양민학살사건’에서 국가가 말하는 ‘학살’은 없었으나, 거창민에 의해 국군에 의한 무고한 죽음으로서의 ‘학살’의 진위가 밝혀지는 것은 구술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문자기록을 배제당한 사람의 기억을 ‘말해지도록’ 하는 구술사 방법론은 구술자를 ‘투명인간’ 또는 ‘배제당한 타자’로부터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해방적 성격을 갖는다.

셋째, 구술사 방법론은 구술자의 기억을 ‘자유롭게’ 한다는 점에서 해방적 성격을 갖는다. 구술사 방법론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실에 접근하는 방법론 중 하나이다. 사회적으로는 침묵이 강요되거나 표출이 억압된 기억을 ‘구술언어’로 변환하는 과정, 다시 녹취 과정을 통해 ‘구술문자’로 정착시키면 ‘구술자료’로 바꿀 수 있다. 예컨대 1991년 “나는 일본군위안부였다”¹³⁾고 첫 발화한 고 김학순 씨의 행위는 실로 억압되고 왜곡된 기억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에 피학살당했던 일부 유족들의 고통에 찬 기억 역시 구술을 통해 해방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구술자 개인들은 과거의 악몽을 가져다주는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다.

넷째, 구술사 방법론은 구술자 개인의 기억만을 자유롭게 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방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구술자 개인의 발화가 사회적 공감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예술과도 만나게 되고,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사회집단들과도 만나게 된다. 예를 들어 위에서

12) 구술 연구자를 가리키는 개념으로는 오랄 히스토리언(oral historian), 구술사가, 구술면접자 등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구술 연구자로 호칭하도록 한다.

13) 『경향신문』 1991. 8. 15. 고 김학순 씨는 8월 14일 여성단체연합 사무실에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마련한 기자회견장에서 “당한 것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일본사람들이 정신대란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혀 증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학순의 고발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도 충격을 주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여성이나 관계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촉진제가 되었다.

언급했던 고 김학순 씨의 발언 후에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다룬 ‘여명의 눈동자’와 같은 소설이나 드라마, ‘노을에 와서 노을에 가다’(연출 홍민우, 극단 빛누리)라는 연극¹⁴⁾,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수요시위’ 등이 전개되면서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으로 집합기억이 발화하는 과정이기도하며, 집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술연행(oral performance)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억압된 기억이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다. 따라서 구술사 방법론은 억압된 기억이 학술적으로 기록됨으로써 해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구술사, 기억을 말하다

구술사는 주로 구술자의 기억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구술사 연구를 둘러싸고 가장 널리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신뢰’의 문제이다. 실증주의적 입장에서는 기억 훈련이 되지 않은 민중의 구술 기억은 종종 ‘불확실’하여 믿기 어렵다고 지적되어 왔다. 기억을 둘러싼 신뢰의 문제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기억이라는 의식의 원래적 성격에 기인한다. 기억하는 방식에 선행하여 ‘본다’고 하는 의식 자체가 분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쉽다는 것이다. 전체를 보기보다는 부분을 보고 쉽고, 장시간 보기 보다는 순간적으로 보게 되고, 360도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각도와 관점에서 보기 마련이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본다는 행위는 사물 그 자체(the thing itself)로 보기는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가능한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에서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구술자의 기억은 불안정하다. 또한 구술자는 구술하기 전에 권력이 없거나 박탈당한 존재이다 보니, 기억하는 행위는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기 마련이다. 설령 잊기 않기 위해 혼자서, 또는 비밀스럽게 기억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사건 그 자체로서 기억되기 보다는 어떤 기억은 강조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억은 사상되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기억은 또한 불안정하다. 나아가 구술하는 단계에서 구술자가 기억을 말하는 과정에서도 사건 또는 사물 그 자체로서 연행하거나 시간의 순서대로 기억하기는 거의 힘들다. 연상되거나 과장되거나 사상되는 일이 기억 연행 과정에서 반복되어 일어난다.

또한 기억에는 ‘망각’이 작용한다. 망각은 기억의 노화, 착오와 오류¹⁵⁾, 건망증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의식 속에서는 현재의 더 많은 기억을 축적하기 위해 오래된 기억을 지워버리는 습성이 있다¹⁶⁾고 한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충격으로 불안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 특정 기억을 지우고, 그러한 불편한 기억에 대해서는 스스로 억압하여 의식 저변으로 밀쳐두기도 하는 현상으로서의 망각도 있다. 일종의 부분적 기억상실증으로서 해리성 장애(dissociative disorders)나 심인성 기억상실증(Psychogenic amnesia)¹⁷⁾이라고 할

14) 『동아일보』, 1995. 10. 27. 이 연극에는 김학순 씨가 출연하여 정해진 각본이 없는 채, 한풀이 마당 방식으로 구연을 했다.

15) 기억이 말해지는 경우, ‘그때 그일’을 정확하게 말하기 보다는 착오나 오류를 범하며 말하기가 더반 사이고, 기억 연구자들에게 기억 오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Daniel L. Schacter, 박미자 옮김, 『기억의 일곱 가지 죄악(The Seven Sins of Memory)』, 한승, 2006, 8쪽. 구술 연구자들이 놓치고 있으나,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은 왜, 어떤 상황에서 착오나 오류가 발생하는가이다.

16) 빅토어 마이어-쾨베르거,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17) 심인성 기억상실증은 과거의 모든 기억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사건만 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심인성 기억상실증은 해리성 장애의 일종이기도 한데, 해리성 장애(dissociative

수 있다. 심지어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불편한 진실에 대해 실제로 망각했을 수도 있으나,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

기억을 말하는 과정은 기억 훈련과 연관되어 있는데, 기억을 연출하는 훈련이 잘되어 있을수록 기억력은 발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기억이 표출되기보다 자신의 행위나 동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의식의 연출이 발달하기 쉽다. 특히 한국과 같은 반공냉전에 의한 자기검열기제가 발달되어온 사회에서는 구술자 개인도 반공적 기억의 재구성력이 높아졌을 수 있다. 역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에 대해서는 ‘망각’하도록 힘도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 대해 제대로 전공을 하지 않은 구술 연구자에 불과한 내가 구술자에게 어떤 요소가 작용하여 기억을 말하는 과정에 망각의 힘이 작용하는가를 제대로 분석하는가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누구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데에 고통과 공포로 얼룩지지 않은 기억을 가진 사람은 드문 편이다. 특히 그간 구술사 방법론을 활용해온 한국 현대사 연구의 주제를 보면, 구술사 방법과 고통스럽지 않은 역사적 사실과 만나지 않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와 분단, 전쟁 등을 보면 그렇다. 그간 내가 주로 연구해온 이산가족(월남, 월북), 탈북자, 납북자, 한국전쟁기 한국군 위안부, 1905년의 멕시코한인 이주자 후예, 조선족, 재일동포, 남파공작원, 북파공작원, 피학살자 유족, 노동자, 분단 접경지역민,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가 등등의 주제에서 어느 주제이건 개인들은 거시구조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척박한 현실에서 개인들의 삶은 한편으로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소영웅적인 삶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위로되지 못한 과거의 문제가 현실적 문제와 함께 얽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아직 나로서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해리성 장애나 심인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간혹은 한국전쟁기 부분에 대해 결코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어떤 때는 대답하기를 ‘회피’한다고 간주하여 재차 질문을 했을 때, 화를 내던 노인들도 있었다. 부분적 기억상실증에 대해서는 다 파악할 수 없었으나, 회피하려고 작정했던 구술자로 하여금 구술사 방법론은 놀랍도록 진실과 직면하게 한다.

몇 명의 구술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몇 가지 사실은 나이 문제와 학력 문제 등이었다. 여러 남성 노인들은 한국전쟁기 군 입대(정규군이나 비정규군, 즉 군 징용자)를 기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1950년대 초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던 사정을 이용하여 나이 조작 방법, 소위 ‘고무줄 나이’ 방법이였다. 나이 조작의 문제는 군 기피를 의미하고,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평범한 민중들로서는 실제의 나이를 말한다는 것은 군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공포까지 드러내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이 국가로부터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은 국가의 수많은 정책에 가급적이면 순종하거나 국가 기관(심지어 말단 동사무소, 면사무소 직원)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사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사회적 존재로서 숨죽이며 사는 것이다. 그러한 구술자와 만나 구술을 통해 생애사를 회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무의식과 만나게 된다. 구술자 역시 얼마간은 긴장을 하여 조작된 나이에 의해 재구성된 삶을 회고하려 했겠으나, 장시간에 걸쳐 생애사가 노출되다 보면, 그런 긴장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개인 스스로 기억을 얼마나 통제하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생애담 회고 과

disorders)은 어린 시절에 당한 성폭행이나 신체적, 성적 학대를 비롯한 정신적 외상(trauma)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강현식, 『꼭 알고 싶은 심리학의 모든 것』, 원앤원북스, 2010, 96쪽, Jon G. Allen, 권정혜 외 옮김, 『트라우마의 치유』, 학지사, 287쪽.

정에서 자신의 조작된 나이가 노출될 때 대개는 당황하고, 웃으며 변명을 했다. 간혹은 화를 내기도 했다. 나이와 관련해서 진실을 털어놔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는 못했다.

나이만큼 많이 위증하는 주제 중 하나는 학력 문제이다. 학력 인플레이가 심한 한국 사회에서 학력만큼 사람들에게 콤플렉스를 주는 문제는 많지 않은 듯하다. 학력 문제는 하층민들보다는 중간층이나 고위층일수록 더 심한 듯하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한 여성지도자 A는 자신의 구술기록에 대해 실명 공개를 허용했었다. 간단한 인적 사항 중 학력 변수도 기재하여 논문이 발표된 후 연락이 와서 분노의 목소리를 내었다. 왜 학력을 가감 없이 그대로 내보냈냐는 것이었다. 나는 A가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더라도 민주화운동을 하고, 수백 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할 수 있던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그러나 A에게는 수 십 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자신의 학력이 드러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력 트라우마라고나 할까.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A만의 일은 아니다.

학력 문제 못지않게 사람들이 잊고 싶어 하는 것은 가족 내력이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1950년대에도 우리 사회에는 축첩이 상당히 많았다.¹⁸⁾ 실제 조사 과정에서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축첩 가족 속에서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근대적 가족 관계 속에서 자랐던 글쓴이는 구술자의 가족 관계를 조사할 때 근대적 일부일처제의 틀에 맞춰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구술자의 실제 가족 관계의 아귀가 맞지 않음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구술자에게 처음 말했던 형제자매관계와 실제 형제자매관계가 맞지 않다고 운을 떼면 어색한 미소를 흘리며, 사실은 자신이나 다른 형제자매의 어머니가 ‘둘째(부인)’라고 말한다. 개인들의 불편한 가족사를 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가부장적 한국 사회구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서 피하기 어려운 진실이다. 이렇듯 개인의 세세한 삶 하나하나에는 거시적 구조가 침투되어 불편한 사회적 관계와 기억을 만들어 내었다.

개인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가부장적 성문화는 성과 관련된 기억을 말하는데도 작동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억의 구술하기에는 젠더적으로 작동(gendered oral performance)되는 경향과 자기와 타자의 경험 말하기의 분리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의 가부장적 성문화 속에서 남성의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행위를 말하기는 부끄럽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금기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행위는 그것이 설령 성폭력의 결과일지라도 결코 허용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구체적으로 식민주의와 국가에 의한 성폭력 문제라 할 수 있는 일본군위안부 조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전쟁기 ‘한국군위안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금단의 영역을 만나게 된다.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남성들의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오는데, 여성들의 말하기는 ‘생략’표와 ‘눈물’, ‘분노’로 얼룩져 있다. 또한 남의 경험을 말하는 데는 비밀스럽지만 허용되어 있으나 자신의 경험에는 말하기가 억압되어 있다. 심지어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경험처럼 말하기도 작동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불편한 기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분단과 전쟁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금단의 영토 속 기억과 부딪칠 때의 사람들의 지독한 불편한 태도를 만나게 된다. 반공주의가 침윤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반공콤플렉스에 가장 예민한 층인 60~80대의 노인층에게 있어 사회주의 단체 및 활동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8) 축첩의 규모는 전혀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 1957년 정부 통계에서 서자의 수가 발표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1956년 5,898명, 1957년 4,551명 정도의 서자가 호적계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볼 때, 첩이나 내연의 처가 2만여 명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임하, “간통쌍벌죄(姦通雙罰罪)의 제정 및 적용과정에 나타난 여성관”, 『사총』 56, 2003, 126쪽.

1990년대 이전까지 레드콤플렉스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들로서는 비전향장기수 출신자정도가 아닐까 싶다. 해방 후 남한 내 사회주의적 열풍¹⁹⁾은 청소년으로부터 장년층까지, 사회 각 부문에 걸쳐 확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시기 민족주의적 입장을 견지했던 소극적인 여대생, 고(故) 류춘도 씨가 『잊히지 않는 사람들』(시집, 1999)로부터 『병어리새』(회상기, 2005)를 내뿜을 때 그의 책에 등장하는 많은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당했고 외면을 당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나의 구술 과정에서도 이러한 일은 비밀비재했다.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친 강원도 속초와 전라북도 김제 지역 조사과정에서 부딪혔던 문제들은 말할 것도 없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러한 일은 비밀비재했다. 2007년 강화지역 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엉뚱한 일을 겪었다. 어떤 연유에서 사회주의 계통의 단체에 협조하다가 우익청년들(?)에 의해 죽은 아버지를 좌익들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 아들은 장시간 구술을 하던 중에 아버지의 죽음을 진실을 무의식중에 토로하게 되었다. 그날 그 자리에서는 원만하게 구술이 마무리 지어졌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나를 간첩으로 면사무소에 신고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익에 의한) 아버지의 무고한 죽음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던 어떤 집에서는 대문에도 들리지 않은 채,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보면 구술이 말할 수 있는 기억은 어디까지인가? 구술 연구자들은 구술 과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기억들을 만나게 된다. 그 기억 속에서는 역사적 증언 자료, 개인의 빛나는 역사도 조우하게 되지만, 고통에 찬 기억들, 수많은 ‘말줄임표’와 ‘몸짓’, 추측으로만 표현되는 알 수 없는 기억 저편의 기억, 망각과 합리화, 거짓말 등으로 얼룩진 기억도 조우한다.

20년 가까운 시간 구술연행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의 목소리인 말을 듣기보다 마음의 소리, 움직임에 먼저 반응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즉 ‘망각’의 움직임이다. 그 움직임에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고통, 트라우마의 흔적이 담겨 있다.

4. 한국현대사와 구술사, 트라우마²⁰⁾

한국 현대사에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힌 사건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경우에는 일본제국주의와 친일민족반역자라는 구조적이면서도 실감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보기에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관련된 상처와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불가능하기도 한 것 같다.

구술사 조사 과정을 회고해 보면, 구술사 방법론을 통해 한국전쟁과 민중의 기억을 드러내겠다는 생각한 것은 참 순진하거나 무식하여 용감했다고 판단된다. 한국전쟁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반공적 경험의 허구성을 드러낸다거나 전후 ‘절박한 생존의 이유’로 반공을 수용하는 것을 구술사로 드러내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억에 달라붙어 있는 트라우마를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점은 그밖에 모든 구

19) 그 열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제 말기까지 항일운동의 명맥을 이었던 사람들은 사회주의 계열이었으므로 해방 후 민중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라는 사실, 해방 후 토지(농지)개혁 등 민중들의 열망을 주장한 그룹들이 사회주의자들이라는 사실, 친일민족반역자에 대한 전 민중적 거부감 등이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20) 이 부분은 아래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음을 밝혀둔다. 김귀옥, “한국전쟁과 이산가족: 지역에서의 이산가족의 기억과 고통”, 『동아시아의 전쟁과 사회』, 한울, 2009, 101~104쪽.

술사 연구 과정에서도 그러했다.

한국전쟁과 고통, 또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제대로 된 연구서는 아직도 없다.²¹⁾ 2000년대 중반 오수성과 전남대학교 심리건강연구소팀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용역과제로 『심리적 피해현황 조사보고서-조사의 신뢰성 제고와 치료 및 재활 측면의 화해방안 모색』을 발표한 바 있다. 아직 본격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한국전쟁과 트라우마라는 주제를 포함한 첫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 보고서에서는 진화위 신청자 중 권위주의 통치기 반민주적 행위의 피해자/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유족/의문사사건의 피해그룹 3개 그룹, 527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전쟁 당시 미군관련 민간인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5·18 피해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²²⁾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로 된다.

아무튼 20년 가까운 현대사 구술생애사를 주업으로 삼아 오면서 가장 참기 어려운 때는 구술자들의 고통의 경험이 나의 고통처럼 생생하게 다가올 때이다. 간혹은 두려움에 밤잠을 깨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종종 떠올리는 자문은 그들은 그런 고통을 겪고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살아갈까 이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심리학계의 트라우마 연구는 많은 지적 자극을 주고 있는데, 반면 연구 결과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왜냐하면 측정되는 수치는 수면 위에 떠있는 의식이어서 불편한 질문에 대해 ‘정답’이 나오기 쉬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술생애사의 경우에도 인터뷰에 간혹 노출된 사람들은 정답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면접자가 원하는 대답을 잘할 수 있고, 인터뷰에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은 타자에 대한 불신이 커서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다만 장시간 구술을 하는 동안 구술자의 의식의 줄기를 찾아가던 중 접하게 되는 불연속면 또는 간극을 만나게 될 때 구술자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구술자들은 질문을 쫓아 말하게 되고, 그러나 보다 은연중에 ‘사실’로서 기억되는 억압되어 있던 부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번번이 경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던지는 자문은 구술생애사는 과연 트라우마, 심연의 고통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이다. 구술사의 장점 중 하나로서 좋은 구술조사는 구술자로 하여금 해방감을 줄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믿어 왔지만, 과연 그러한 것인가를 종종 의심한다.

1990년대 연구뿐만 아니라, 2000년대 구술조사에서도 구술사 조사에서 몇 번의 위기를 겪었다.

첫째 구술자 B(1933년생, 여)의 일화를 살펴보자. B는 최근 농촌 노인들이 그렇듯이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 나가 살고, 그는 일 년간 먹고 살 식량을 생산할 토지를 임대하여 먹고 살고 있다. 그와 인터뷰를 하던 처음에는 그의 동네 친구들이 구경이나 나온 듯 4, 5 사람이 함께 인터뷰에 참여했다. 거의 시장분위기였다. 친구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떠나고 나면서 얘기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집안의 슬픈 경험, 가정사까지 나왔고, 전쟁 얘기가 한참 진행된 후 끝날 무렵에 최근 ‘과거사정리를위한진실과화해위원회’가 생겼으니 집안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시라고 말하자, 그는 눈을 반짝이며, “사실은 내 동생이 아랫녘에 끌려가 억울하게 죽었다”²³⁾라고 털어 놓았다. 몇 마디를 더 나누고는 헤어졌다. 그리곤 그날 저

21) 직접 연관이 있는 연구는 아니지만 정신분열증과 냉전 상황이 연관된 조사로는 다음을 볼 수 있다. 이병윤과 민병근의 연구인 “한국인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에 관한 연구”(1962)에 따르면 1956년부터 1961년까지 피해망상증 환자 가운데 피해망상의 대상이 수사기관이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빨갱이가 많았다고 하여 단서적 수준에서 분단이 우리 사회에 끼친 트라우마 문제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이병윤·민병근, “한국인 정신분열증 환자의 망상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1(1), 1962, 38쪽.

22) 전남대학교 심리건강연구소, 『심리적 피해현황 조사보고서-조사의 신뢰성 제고와 치료 및 재활 측면의 화해방안 모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심리건강연구소, 2007, 131쪽.

년, 다음날 계속 나를 찾아다녔다. “비밀로 해달라” “내가 잠을 자지 못했다.” 노인네의 얼굴이 수척해진 것 같았다. 할머니를 어머니인 듯 안아드리며 손을 잡아 드리는 수밖에 없었다.

둘째 C의 일화이다. C(1933년생, 남)에서 고생 끝에 성실한 태도를 인정받아 동네일을 많이 맡아보았던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 가난하여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이야기나 부모가 고생하던 이야기에 눈물겨워 하며 구술하였다. 구술 도중 연좌제의 해악에 대해서 자신이 감시를 해봤으니 잘 알지만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강조했다가, 과거에 좌경 경력이 있는 동네 사람이 지금도 의심스럽다는 말을 하곤 했다. 구술을 시작하기 전부터 술에 취해서 그렇거니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의 족적에 언급이 전혀 없다가 문득 비밀스럽게 ‘아버지가 강화에 나가 죽었다’고 말했다. ‘단지 빨갱이들이 짐을 실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했을 뿐인데…….’를 몇 차례 강조했다. 아무튼 그날은 구술을 잘 마쳤다. 그런데 며칠 후 면사무소를 방문했더니, 면장이 내게 “간첩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해주었다.

셋째, D(1950, 남)의 일화이다. D의 큰 아버지가 월북을 했고, 동네 유지였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때 부역혐의자로 찍혀 동네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 그로 인해 그의 아버지는 하류인생으로 전락하여, 술로 지새우다가 요절했다. 그 자신도 육군사관학교를 지망했으나 연좌제에 걸려 실패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 계속 요시찰 인물로 동태 조사받던 기억과 공포를 말하며 국가에 대한 미움도 사무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선거철만 되면 여당을 지지했다. 선거는 비밀선거이건만, 도둑놈이 제 발 저리는 심정이 발동하여, 자기검열이 발동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다.

그 외에도 고통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자신의 이름을 쓴 기록을 자신이 있는 앞에서 모두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 번을 약속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는 시골사람-주지하듯 그래도 마당이 넓은 시골 마당에 발을 들여놓고 이야기 하기란 쉽지 않음-도 있었다.

구술자가 자신의 가족의 경험에 대해 정황상 ‘자진 월북’이지만, ‘납북’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하거나 수많은 월남인들이 군경에 의해 ‘소개(疏開)’되어 피난하였으나, 자진 월남한 것으로 말하는 건 생존의 논리 속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그의 기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상실증인지 기억의 왜곡인지, 사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해리성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도 적잖이 있다. 즉 흔히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면 ‘10권 분량’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불편한 이야기에 직면하면 대개 ‘생각이 안나는데’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된다. 해외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다. 중국이나 일본의 이산가족 조사 시에 동포들 스스로 자신들의 말은 반만 믿으라고 한다. 나 자신을 못 믿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상을 못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기억과 망각의 원리와 함께 국가 문제도 함께 작동하고 있다고 봐진다. 이런 식으로 구술사가 온전한 기억에 도달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구술자 자신이 기억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형적인 바로 피해자의 트라우마이고 깊은 상처가 내면화되어 있는 상태²⁴⁾라고 할 수 있다.

23) 1950년 9·28수복된 후 10월경 교동에 치안력이 회복되면서, 기왕에 치안대들이 잡아들인 부역자들을 일부는 자체 학살 처리했고, 일부는 강화읍 경찰서로 송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인천에 보내져 복역되었는데, 일부는 석방되어 귀향하였으나 당시 상당수는 섬 주변의 앞바다에서 사라졌다(수장 혐의)고 한다. 최태욱, “강화군 민간인학살”, 『전쟁과 국가폭력』, 선인, 2012, 134쪽.

24) Judith Herman, 최현정 옮김,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테러까지』, 플래닛, 2007[1997], 26~27쪽.

5. 구술사와 치유의 가능성을 찾아서

과연 구술사는 개인이나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게 가능한가? 2000년대 한국에서 구술사, 문화사 연구가 진행되면서 트라우마, 치유 문제 연구도 함께 소개되고 있다. 20세기를 걸쳐 한국은 일제 강점기와 분단, 전쟁기의 국가폭력을 집단적으로 경험했고, 정전 이후에도 수많은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피해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도 노동자, 민중, 여성 등 무수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사건이 발생했다. 200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²⁵⁾(2000년 설립)나 각종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들이 설립되면서 진실을 규명하며 신원을 회복하는 일도 있었다. 위 위원회에서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상이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기지급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했으나, 국가에 의해 희생자들의 트라우마를 직접 치유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은 아직 없다.

남아공화국이나 중남미 지역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외상을 치유하기 위해 트라우마치유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시아에는 이런 곳이 없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10월 ‘광주 트라우마 센터’(센터장 강용주)가 시민들의 노력으로 세워졌다. 센터장인 의사 강용주 자신도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이다. 그곳에서는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고문, 수감, 의문사, 열사, 반인권적 공권력 집행 등에 의한 국가폭력 피해자, 생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당했던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되어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일상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한다.²⁶⁾ 아무튼 21세기는 여전히 한반도에 냉전의 분위기가 짓누르고 있으나 지난 국가폭력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트라우마의 치유란 일반 외상만큼 단순하지 않다. 트라우마는 과거가 현재 속으로 끊임없이 침습하는 것이다. 외상을 겪은 사람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플래시백(flash back), 악몽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냉소, 원한, 불신, 소외감, 미움, 복수심, 사기 저하, 신념의 포기, 희망의 상실과 같은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나 해리성 장애에 모두 나타난다.²⁷⁾ 트라우마가 오랜 세월이 경유할 경우에는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의 문제는 다른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인성이나 성격이나 왜곡된 행위 등과도 결합하여 치유의 원인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치유하기는 더욱 어렵다.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의 의식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스스로 환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치유받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좋다. 정신과 의사들은 트라우마는 고치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한다.²⁸⁾ 그들은 “외상적인 사건을 제거함으로써 PTSD를 가장 잘 예방할 수 있다. 폭력의 원천인 빈곤, 불평등, 편협함을 근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²⁹⁾이자 치유라고 설명한다. 사실 가장 좋은 출발이라고 말하는 빈곤이나 불평등을 근절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해결 중의 하나이다. 정신과 의사들 역시 PTSD, 외상후 스트레스란 개인적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적 진단과 처방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방법이 개인적 차원과 사회, 국가적 차원에도 모두 고려되어야 할 필

25) 위 위원회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1999년 12월 제정)」에 따라 2000년 8월에 설치되었다.

26) 『뉴시스』 2012. 10. 18.

27) 존 알렌, 앞의 책, 25, 265, 287쪽.

28) 위의 책, 284쪽.

29) 위의 책, 284쪽.

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술사가 트라우마 치유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구술사의 관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치유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은 연구자의 진정성 있는 연구태도의 확립과 실천이라고 보인다. 구술자와의 신뢰 형성이 가장 시급하다. 구술자의 구술 내용이 ‘진짜다’ 또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 더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가 많은 구술자일수록 앞에서 봤듯이 구술한다는 일을 힘들어 하고, 구술에 참여하면서도 구술자는 연구자를 끊임없이 못 믿어 의심스러워하고 조금 전에 구술한 것조차도 무위로 돌리는 일이 서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술자가 구술 상황에 임한 것만으로도 일정한 치유의 시작의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많은 구술자는 자신이 구술에 참여한 것에 만족스러워하고 자긍심을 갖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술한 결과가 활자화되었을 때 소중히 여기는 경향도 보이기 때문에 억압된 상태가 다소 해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구술 연구자는 구술자의 정보 보호를 지상의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³⁰⁾ 구술 연구자와 구술자의 관계는 주체 대 주체의 관계³¹⁾이면서 대면적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문헌 연구의 대상인 문헌 자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연구자는 연구 성과를 내는 데에 있어서 구술자에게 엄청난 신세를 지게 되고, 구술자가 없이는 구술사 방법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구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 주체는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거짓된 관계를 갖는 것은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민중은 연구자로부터 받는 존중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역으로 연구자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구술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연구 윤리상 최악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구술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은 크게 보면 신뢰를 형성하는 길이며, 구술자가 구술로 인한 새롭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또한 구술자로 하여금 구술 증언을 하고도 ‘안전감’³²⁾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구술사 방법론은 연구자와 구술자의 호흡 맞추기와 신뢰의 형성에 따라 연구자는 구술자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폐쇄적이다. 물론 역의 경향도 존재하여, 잘못된 무조건 남의 탓을 한다. 그런데 구술사 증언 과정에서 구술자는 문제가 자신의 불운이나 자신의 잘못, 타인의 탓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조망하여, 사회 구조적, 시대적 원인에서 발발하게 됨을 깨닫게 되는 가운데 죄책감이나 불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성실하면서도 풍부한 학문적인 노력을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구술자를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느끼며 연민감과 연대감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부분적이기는 하더라도 구술자가 안고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 구술 연구 윤리를 잘 배우고 익히고 실천을 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술 연구자들이 구술사 방법론을 배우는 과정에 트라

30) 김귀옥, “지역 조사와 구술사 방법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역음, 『한국사회과학』 22권 2호.

31) 전통적인 심층면접법에서는 구술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면접(대상)자’로 호칭하므로써, ‘타자’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구술사에서는 ‘타자’적인 인식은 거의 부재한 편이다.

32) 존 알렌은 PDTD환자가 ‘안전감’을 느끼는 것은 치료의 시작이 아니라,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위의 책, 286). 구술증언을 통해 구술자는 자신의 명예 회복에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면서도 치명적으로 생각해온 기억을 말했더라도 안전감을 느낀다면 불안정성, 자기 부정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마 치유법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노력은 결코 쉽지 않다. 더 어려운 일은 구술사를 통한 사회적 치유의 노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중의 트라우마 문제가 사회적 의제(social agenda)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흔히 연구자는 구술조사 작업을 연구논문이나 보고서, 구술자료집 등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사회적 치유의 가능성은 사실 연구자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야 가능하다. 그러나 구술사 연구가 새로운 연구 주제를 도출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연상시키는데 ‘대체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구술사를 통한 역사기록의 빈 공간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고난사를 발굴해 낼 때 사회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코드화’(social encoding)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트라우마 글쓰기와 연구 발표 활동 등은 그런 주제가 사회적 의제로 삼아지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 발표의 자리에 주요 구술자를 초대하여 연구 내용을 검증받을 뿐만 아니라, 구술자 자신이 연구 대중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과거청산의 주제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나 분단과 한국전쟁기의 민중의 고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집단적인 문제이자, 국가폭력과 맞물려 있다. 처음에는 연구자의 연구성과물이 사회적 관심이 되지만, 의제의 확산은 구술자 자신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데 기여하게 된다. 나 역시 이산가족이나 분단과 전시 대량살상의 피해자들의 많은 사례를 연구보고서와 언론에 소개하며 그들 스스로 문제제기하는 길을 일정 정도 도움을 주었다.

셋째, 국가에 의해 과거청산의 요구를 받아들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로서는 과거청산의 정당성과 필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공명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에도 호소하거나 활용하고, 국가 기구가 형성될 때 과거청산의 거버넌스에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피해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사과와 위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개인적 또는 집단적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법제도화하도록 주장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법제도화되었을 때 피해자들은 진정한 사회적 ‘안전감’을 느낄 수 있다.

나아가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트라우마치유센터 등을 통하여 트라우마 보유자들의 삶이 진정 자유로워지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치유센터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각종 폭력의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크게 열어두게 되면 사회적 화해와 관용심을 형성하는 데에는 기여하게 될 것이다.

6. 맺음말

구술 연구자는 일개 연구자일 뿐이다. 연구자에게 연구는 생계수단이자 학문적 성취와 자아 정체성의 근원이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연구자적 고독을 극복하며, 학문적 실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갖게 된다. 일반 연구자들의 연구 지점이 여기까지라면 구술 연구자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즉 구술자라는 또 다른 주체와의 관계 지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하게 된다. 첫째는 구술 연구자는 구술자의 인생과 직면하게 됨으로써 그것에 대한 책임에 직면하게 된다. 구술자의 삶은 연구자 개인의 학문적 수단이나 재료가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구 성과물을 통해 그렇게 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구술자의 안전감, 명예 회복 및 자긍심 함양 문제 등에 대한 최고의 윤리의식을 발

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다음으로 구술사가 갖는 숨은 기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구술자의 생애가 연구자의 의식의 한 부분이 되어 간혹은 연구자의 삶에 고통으로 다가올 경우가 있다. 학문적 접근은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구성물이고, 복합적인 현실을 분석해야 하는 치열한 작업이다. 그런 과정에서 연구자가 구술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이나 공포감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구술 작업 자체가 연구자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 역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뿐만 아니라,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술자로부터는 모든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하되, 구술 내용으로부터 일정한 정도 거리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연구자 이전의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성찰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 상처 없고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더욱이 20세기의 한반도는 일제 강점기와 분단과 전쟁의 100년을 겪으면서 개인적·사회적 한과 분노, 공포 등이 착종한 야만의 시대를 경험했다. 민중에 대해 수많은 국가폭력이 가해졌으나, 사과하지 않는 국가를 향해 책임을 물을 수도, 분노할 수도 없던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폭력을 개인의 불운 탓으로 여기며 속으로만 억울함과 분노를 삭여야 했다. 이제 그러한 시대는 끝났는가? 민주화시대를 맞아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의 상처가 진정 치유되었는가? 신자유주의 시대는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다. 식민주의 시대와 냉전 시대의 트라우마는 산업화 시대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트라우마와 결합하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사람들 속에 자리잡고 있는 듯이 보인다. 당분간 구술 연구자들의 학문적·사회적 역할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